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모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신지서 강해

## 목자 되신 왕

스가랴 10:1-12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조건은 한 가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늦은 비가 내릴 시간입니다. 그 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능력 많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 1. 자기백성을 공급하시는 목자

10장에서는 자기백성에게 공급하시는 목자를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시는 것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1)” 봄비가 올 때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수확기입니다. 수확 전에 결실을 위해선 늦은 비가 와야 하는데 그 늦은 비가 오는 때를 봄비가 올 때라고 했습니다. 그 비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상을 쳐다봤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니...(2)” 우상을 따라가는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별 구별이 없지만 유사시에 보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 군사적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니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펴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다 비를 주십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특별한 은총까지 받았습니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급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 2. 성결케 하시는 목자

목자는 자기 백성들을 성결케 하십니다. 즉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주일을 정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배당도 거룩한 전이란 뜻으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구별된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 인간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으로 구별하십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구별하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인치십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니...(2)” 3절로 5절 말씀엔 참 목자가 거짓 목자를 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3)” 이때 목자는 거짓 목자입니다. 당시 헬라의 왕들,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는 모든 왕들을 말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 악한 왕들도 포함됩니다. 오직 참 목자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거짓목자, 수염소는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바벨론의 관리들입니다. 겐으로는 이스라엘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나 나귀처럼 때리면서 몰았습니다. 그러나 3절 반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준마는 전쟁에서 승리한 말입니다. 승리한 말은 주인이 쓰다듬어주고 좋은 양식을 주며 대접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려서 노새와 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준마와 같이 대한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퉁이돌은 본래 집 지을 때 구석에 벽과 벽을 연결을 시키는 돌이며 희생의 돌입니다. 땅 밑 깊이 파묻혀서 큰 기둥을 떠받치면서 불

평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직무를 다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는 데 그것이 유다에게서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내적인 힘을 말합니다. 또 싸우는 활은 정복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권세 잡은 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 3.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목자

또한 목자는 자기 백성을 모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이 분열됐습니다. 분열된 백성을 메시아가 오셔서 모이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6)” 여호와와 계약을 지키시는 분, 즉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내게 위기가 닥쳐왔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유다의 승리에 동참할 것을 말

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7)” 여기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다가 이길 때에 에브라임도 같이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남쪽과 북쪽을 다 모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8)”

우리 하나님은 휘파람처럼 최소의 운동으로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남북통일,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 포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조건은 한 가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늦은 비가 내릴 시간입니다. 그 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능력 많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또 메시아가 오시어 때가 차면 모든 걸림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최후 승리를 믿고 하나님 편에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성경은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때가 내게 가장 강한 때입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내 힘으로 걸을 수 없고 약해질 때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터이니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 제89회 총회 시국성명서 발표하다

##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제89회 총회 총대들은 오늘의 상황이 비상시국임을 확인하고 시국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밝히기로 하고 시국 성명서 초안 위원회를 지난 13일 전격 구성하고 이종운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들이 기도하면서 작성한 성명서는 16일 총회에 상정되고 1,500명 총대들의 열화와 같은 합성

속에 기립박수로 통과시켰다. 총회가 시국성명을 발표한 것은 유신헌법 반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기도문·사도신경 재번역은 한기총과 교회협의회(NCC)가 이종운 목사를 각각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총회위원회는 계속 되도록 허락하였다.

###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교회, 세상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89회 총회는 지금 우리 민족과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 우리 사회의 갖가지 현안들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적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과거 IMF 관리체제하의 위기 때보다 더 심하여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생문제를 도외시한 채 과거사 들추기, 국가보안법 폐지, 행정수도의 졸속 이전, 비판언론에 대한 압박 등 이념적이고 정략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대다수 국민은 사회적 편 가르기와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현 정권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못지않게 여론을 무시하고 독선과 비민주, 그리고 반대세력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이다. 여기에 인터넷 언어폭력으로 많은 사람이 침묵을 강요당하면서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 못지않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민을 편하게 해주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우리는 먼저 우리 사회가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로 인해 국론분열로 치닫고 있음을 크게 우려한다.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조항은 마땅히 고쳐져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보를 위한 법”은 어떤 형태든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안보와 남북교류 협력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살고 국민이 안심하며 교류와 협력에도 나설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용하여 여야 합의로 인권과 안보의 균형점을 찾으으로써 조속히 국론분열을 수습하기

바란다.

2.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사학의 운영주체를 바꾸려는 시도는 사학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학의 건학이념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결국 기독교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이 사학제도의 근본을 부정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3.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인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수도를 졸속으로 이전하지 말고 우선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일에 힘써야 한다.

4. 평화로운 남북 관계와 돈독한 한미관계는 어느 것도 소홀히 될 수 없으며 남북협력을 위한 노력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류와 협력이 치중한다면 나미안보를 소홀히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은 남북간 정치적 관계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가지고 북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조급한 성과에 집착하여 정도(正道)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5. 우리는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KBS, MBC를 이토록 철저히 편향화 한 것은 권위주의 정부시기 이외에는 없었던 일이다. 나아가 우리는 정부가 나머지 언론에도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정부는 한국교회가 이점을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가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회는 민주화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이에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9월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 2004 사명자 대회 준비 시작되다

## 사명자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 확정

교회는 오는 10월 10일(주)부터 시작되는 2004 사명자 대회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기 위하여 2004 사명자 대회 준비위원회 조직을 확정짓고 각 분과별로 섬김 위원들을 발표하였다.

말씀과 기도의 작전인 홍해작전과 더불어 기도와 전도의 작전인 사명자 대회는 우리교회의 자랑이다. 성도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전도의 운동으로 교회 설립 일 50일 전에 시작하여 50일간 계속한다.

### <2004 사명자 대회 조직>

- 대회장: 이종운 목사 · 본부장: 하영수 장로
- 지 도: 오정식 목사

#### 1) 진영분과

- 책임: 홍성주 장로 · 진행: 최형렬 집사
- 실행위원: 최치순 이상철 최광성 유윤상 장두현 이상태 오치열 박정수
- 통계: 서준식 집사
- 실행위원: 우지원 최규초 홍일성 유기찬
- 발송: 박현영 집사
- 실행위원: 박순복 이난화 서중숙 안명덕 최미경 박중숙 석상화 장효정 이미연

#### 2) 홍보분과

- 책임: 전기섭 장로 · 총무: 김규태 집사
- 실행위원: 조절기 김시환 유태서 허숙 김민철 나소정 남선교회 여전도회 섬의부장

#### 3) 전도분과

- 책임: 김광선 장로 · 총무: 김은태 집사
- 실행위원: 김중준 이경우 이인선 주경자 박이선 심명숙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장단

#### 4) 기도분과

- 책임: 왕경래 장로 · 총무: 오형철 집사
- 실행위원: 김영주 류중관 이상호 양인수 윤성남 김복승 김중운 이광열 유신 윤문자 손재겸 박경희 교구간사 권사회 임원

#### 5) 교육분과

- 책임: 노문환 장로 · 총무: 최양진 집사
- 실행위원: 각 교회학교 교역자, 부장, 부감

#### 6) 안내분과

- 책임: 최종시 장로 · 총무: 오광환 집사
- 실행위원: 이동만 이계홍 김중근 김성준 조동만 김재근 손병석 오승민 이은자 김정임 이자혁 이영자 황노전 안분선

#### 7) 재정분과

- 책임: 오정수 장로 · 총무: 임훈규 장로

## 9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9월중에 성경을 통독한 성도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2독: 하정자 권사(7교구), 김현주 권사(8교구)  
이윤영 권사(5교구)
  - 1독: 김정애 집사(1교구), 천정화 집사(12교구)  
정희순 권사(12교구), 전용순 권사(12교구)  
이금순 집사(13교구), 장두현 집사(13교구)

2004 이웃사랑 교회사랑 열린바자 현장 스케치

# 이웃사랑 · 교회사랑 열린 바자!!!



계  
피어 있

었다. 8층 식당에 서는 냉면, 비빔밥, 육개장 등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하였다.

빨간조끼를 입은 진행위원들의 헌신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으며 물건의 주인을 부르는 성도들의 친절함 전락도 다양하여 현장은 즐거움과 약자 지결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성도들뿐 만 아니라 교회 주변 사람들의 참여와 점심시간을

이용해 들린 샐러리맨들도 눈에 띄어 반가움은 배가 되었다.

바자는 그 취지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웃 사랑과 교회의 헌당을 위해 그 수익금이 쓰여지기에 바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은 시간을 내어 힘든 일을 돕기 위해 교회로 교회로 발걸이 모여졌고, 일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이라도 일을 돕고 서둘러 일터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었

다. 부목사님들께서도 각 교구를 돌며 격려와 함께 물건을 구입하는 사랑을 보여 온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저절로 감사가 우러나왔다.

(4면에 계속)

범사에 감사한 생활을 하라는 목사님 말씀에 이어 각 교구별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성껏 준비된 2004 이웃사랑 교회사랑 열린 바자가 개장되었다. 교회 정문 앞과 일층 복도, 7층 그리고 한티공원과 8층 식당에는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이 몰려

물건을 판매하는 성도의 손길 이 무척이나 분주했다. 비가 많이 내릴 것



이라는 일기예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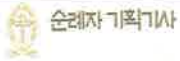
는 달리 환하고 좋은 날씨, 시원하게 잠깐 지나친 빗줄기, 목요일 장마처럼 쏟아지다 개장 10시전에 깨끗하게 드러나는 하늘을 보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쳐도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자를 시작할 수가 있어 감사했다.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된 바자는 이 일을 위해 조금의 주저함이나 물러남이 없이 애써 주신 손길들이 있어 그 빛을 더했다. 교회의 어른이신 권사님들의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모습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취져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또한 적극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집사님들과 성도들의 밝은 음성에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담겨있어 한층 은혜가 더했다. 성경책을 비롯하여 옷과 양말, 신발, 과일코너와 양념, 액세서리, 마른반찬, 김치, 젓갈과 건어물, 건강식품 그리고 화장품과 생활용품 크고 작은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들이 주인을 기다리며 나란히 진열이 돼 있었다. 한편 어느 교구에서는 스포츠 의류와 신발 등으로 이웃사랑에 한몫을 담당했다.

한티공원은 식물을 돌구는 각가지 냄새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았고 특히 에바다부는 1000여개의 호떡을 파는 기쁨을 토하기도 했다. 뜨거운 가을 햇살을 받으며 음식을 만드는 봉사자들은 연신 땀을 닦아내면서도 서울교회 공동체의 하나 됨에 기쁨과 감사로 얼굴이 환하





# 돌아보는 서울교회 IV

## - 대치동 시대(2) -

다음은 현당을 앞둔 기획기사로 서울교회 10년사에서 발췌, 4회에 걸쳐 내보낸다.

### 다. 공사와 입당

IMF의 구제금융 한파가 전국을 휩쓸던 98년 10월 우리교회는 새 예배당 건축의 첫 삽질을 했다.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암반 파쇄작업이나 흙 처리 작업 등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어려움 없도록 상황이 조성됐고, 역설적으로 IMF상황으로 인해 공사인력 수급과 장비 도입이 훨씬 수월해서 작업진도가 나날이 빨라졌다. 그러



입당을 준비하며 대청소로 헌신한 성도들...

구경의 설명이었다. 그 해 연말에는 이 법이 다시 폐기됐기 때문이었다. 신묘막측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교회는 완공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갔다. 공사를 자영하고부터는 매주 토요일 부설로 현장에 와서 새벽기도회와 작업장 봉사를 했고 2개월 전부터는 밤 경비대를 조직하여 교구별 불침번을 서기도 했다. 완공을 한 달 앞두고는 매일 밤 전 교인이 총동원되

기를 1년여, 교회는 갑자기 큰 장애물을 만난다. 99년 11월 시공회사인 상상종합건설이 재정난으로 부도를 맞고 공사포기각서를 낸 것이다. 건축계약은 파기됐고 온 교회 성도들은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였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된 것에 자만했음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시공회사를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교회 스스로가 시공자로 나서서 초유의 선택을 한 것이다. 당시 IMF 상황에서 많은 건설 회사들이 도산하고 건축이 완공을 보지 못하자 건축법이 개정돼 건축회사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이 법의 적용으로 건축주 스스로 시공자가 되어 자영을 한 사례는 우리 교회가 유일했다는 것이 관찰



새예배당 입당 타임 컷팅을 하며...

### 김격의 입당감사예배 전경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반 백성 맞으라  
2000. 12. 25  
입당감사 예배  
내가 네 영광의 집을 영직함께 이리려  
(시 69:17)

고 있다. 몽골과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매년 해외 단기선교팀을 파송했고, 20개국 교계지도자를 초청한 아시아 로잔대회와 미국 이민 백주년 기념 청교도 신앙세미나, 제36회 아시아 합동연주회, 파이프 오르간 심포지엄을 여는 등 우리교회는 세계 교계의 선두에서 그 위상을 높였다. 한편으로 70인 전도대를 중심으로 한 전도 활동과 열린 바자, 주부대학, 경도대학, 농촌 전도단 파송을 중단 없이 계속해 오며 지역사회와 민족국가에 봉사하는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끝)

(3면에서 계속)

바자위원장 되시는 오정수 장로님은 이 기회를 통해 성도간의 친밀한 교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서울교회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폐회예배에서 이종운 목사님은 구름의 이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3일 동안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상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이웃의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참여가 있어 서울교회 뜻을 밝은 이웃들이 새싹이 나고 열매맺기를 바라며 이 기회를 통해 교회의 담을 낮추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예배를 마쳤다.

### 동정

- 이종운목사는 매주 화요일(2학기) 장신대 박사과정 강의를 한다.
- 권혁우 집사(13교구)는 진위고등학교 정해관(도서관, 기숙사) 준공 감사예배를 드린다.
- 하영숙 집사(1교구)는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4층에 벨베스트(남성 복도탈)점을 연다.
- 주간 식당 봉사: 모세남선교회(9월19일) 도르가 여전도회(9월26일)
- 금주의 식사 김현주권사 (범사에 감사하며)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 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B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종미 지역 해외방송) · 강남 케이블 TV CH 4 - 주일 저녁 9시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 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을 믿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4 사명자대회를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2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성경대학 ·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요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외약도 :

